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노동자 자주관리 경험을 사례로*

Making Alternative Economic Spaces under the Capitalism:
An Experience with Workers-Run Companies in Argentina

황진태**

본 연구는 첫째, 노동자를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간주하는 노동지리학과 둘째, 노동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넘어서 다른 경제 시스템을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공간론을 결합하여 현존 자본주의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의 생산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에서 2000년대 초에 발생한 고용주가 버린 공장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한 시도를 살펴본다.

주요어: 아르헨티나, 노동지리학, 대안적 경제공간, 노동자 자주관리, 스케일의 정치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주최한 2011년 제2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작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 초고의 작성에 도움을 준 김창현, 엄은희 선생과 논문에 실린 스페인어의 한글식 표기를 검토해준 조영지 후배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미완의 초고에 건설적인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수료(dchjt@naver.com)

"이르헨테르 경제는 19세기 한자녀 비슷하다.

평생에 걸쳐 항복한 이 복잡한 한자녀는 라틴어를 증명거리는 이시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시들은 한자녀 영공역을 살피고 채운을 재터 퍼들 뽑기도 한다. 처음에는 한자녀 고통이 완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동일한 짐추가 재발한다.

이르헨테르에서는 이런 과정이 비틀스럼에도 귀착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Corradi, 훗터 미산; 이석형, 1992: 95 재인용)

"우리는 공장 안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건설했다.

우리는 대학, 노조, 실직 노동자 조직들과 연대를 건설했다.

(고용주 없이 노동자가 운영하는-인용자주) 시논(Shanon)은 고집된 정형이거나

미친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실행에 옮긴 구체적인 정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논은 노동자들이 꿈은 실행하는 실행심이라고 말한다.

5년 후, 이것은 더 이상 실행심이 아니라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경제적 대안임을 증명할 것이다"

(시논 노동자, Triguero, 2009 재인용).

1. 서론

최근에 발생한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태는 이윤 추구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 노동자의 입지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창집, 2010)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동자의 희생에 바탕한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의존성은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노동자가 맞설 수 없는 억압의 높은 파고(波高)를 형성하고 있다(손호철, 2009; 조희연, 2010). 여기서 필자는 역사적으로 노동역압적인 한국의 경로의존성이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숙명론적으로 자본친화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逆)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역압적인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나는 경로이탈(pathbreaking)의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형성과정에서 자본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이고, 우세한 반면에 노동자는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수동적인 객체일 뿐인가? 둘째, 이러한 수동적 객체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로 매개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해체하고 대안적 경제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상의 연구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두 가지 논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최근 비판적 인문지리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노동지리학(labor geography)을 검토한다. 노동지리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공간은 자본이 능동적으로 주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노동자는 그러한 경제공간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신고전 경제학적 시각을 문제시하고, 노동자도 능동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Herod, 2001).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동지리 연구문헌들은 제1세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파업이라는 특정한 국면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황진태, 2011b). 또한 현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면서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경제공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맹점들은 두 번째 연구질문과 연관된 대안적 경제공간(alternative economic space) 논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대안적 경제공간은 말 그대로 착취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문제시하면서 착취가 없는 다른 경제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다(Leyshon and Lee, 2003).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는 자본주의가 발아(發芽)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논의되고, 실험되었다(Peuter and Dyer-Witheford, 2010; Spieczny, 2004: Chapter 4). 하지만 많은 경우 자본주의의 대안이거보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국지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설립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자본주의 경제공간인 산업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workplace)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지리학과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에 내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논의의 결합을 통하여 노동자도 자본주의의 경제공간을 능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서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대체할 대안적 경제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에서 2001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용주가 버린 공장을 노동자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¹⁾ 특히, 여러 시도들 중에서 시논 세라믹 공장²⁾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시논 공장은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공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자주관리를 막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를 소재로 대표적인 반세계화 활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이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고(<The Take>, 2005), 이 영화를 활자화한 단행본(The Lavaca Collective, 2007)은 여러 학술지에서 리뷰로 소개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Barry, 2008; Panayotakis, 2009; Russo and Starecheski, 2008). 하지만 국외에서의 뜨거운 관심과 달리 아직 국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개된 바가 없다.

본 사례를 주목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권위주의적 국가형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미국과의 지정학적 관련이 깊다는 정치경제적 유사성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시사점

1) 노동자가 공장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고, 본 사례에 대한 개별 연구자의 강조지점에 따라서 Occupied company, Workers cooperative, Worker-run factory, Reclaimed enterprises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자 자주 관리로 통일한다.

2) 이 공장은 노동자가 점유한 이후로는 'FaSinPat(Fábrica Sin Patrón)', 다시 말해 '고용주 없는 공장(Factory Without a boss)'으로 불렸다(The Lavaca Collective, 2007: 46). 하지만 본고에서는 시논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르헨티나가 위치한 라틴 아메리카는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만큼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초국적 자본, 미국 등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왔었다(피트 외, 2007). 둘째,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현된 공간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장 극단적으로 추진된 국가다(피트 외, 2007: 180). 1970년대 군부독재정권과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한 개방정책은 1990년대 이후 메넴 정권에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소위 ‘아르헨티나 병(Anomalia Argentina)’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만성적인 경제위기의 덩어리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깊숙이 침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는 일면적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지식사회학적 차원에서 국내언론과 학자들은 제1세계의 눈으로 제3세계를 보듯이 아르헨티나를 ‘저발전의 발전’, ‘복지국가 망령이 든 페론주의’, ‘아르헨티나 병’ 등의 매우 일면적인 이해에 쫓아왔다. 사례연구로 다룬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다루지 못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자본에 대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대응은 그러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각의 교정을 통해서 앞으로 신자유주의가 깊숙이 착근된 한국사회에서도 제1세계 이외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대안들에 보다 더 주목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노동지리학 연구와 대안적 경제공간론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정리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이론 논의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노동자 자주관리를 살펴본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논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마무리된다.

2. 이론 논의

1) 노동지리학에 대한 검토

그간 정치경제학자들은 자본의 시각에서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지리를 연구해왔었지만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경관과 불균등 발전의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부터 선도적으로 노동지리학을 발전시켜온 앤드류 헤로드(Andrew Herod)는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화를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지리란 첫째, 경제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활동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자본가의 시선에서만 자본주의의 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을 단순히 입지요인 또는 추상노동의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개념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경제지리 경관을 생산하는 사회적 존재로 개념화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재생산과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공간을 생산하기 때문이다(Herod, 2001: 15~16). 노동자의 시선에서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생산을 바라보는 것을 제안한 헤로드의 노동지리학은 최근까지도 진보적 지리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Castree et al., 2004; McGrath-Champ et al., 2010; Bergene et al., 2010).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지리학이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공간이 필연적으로 자본과 기업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능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취약해진 노조 운동에 새로운 운동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러한 노동지리학의 의의를 수용하지만, 나아가 기존 노동지

리학의 세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는 주로 제1세계 중심으로 진전되면서 제1세계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발생한 사례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황진태, 2011b: 145~148 참조). 제1세계 노조들은 전후(戰後) 포디즘에 기반한 경제발전의 수혜를 바탕으로 제3세계와 달리 상대적으로 노조 설립의 역사가 길며, 초국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풍부하다. 그 덕분에 제1세계 노조의 경우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 노동조직을 활용하여 노동자 국제주의(labor internationalism)의 형태로 초국적 자본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었다(Wills, 1998). 하지만 이러한 제1세계의 경험을 다른 지역, 국가에 위치한 노조들의 전략으로서 기계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각 노조가 위치한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제1세계 이외 다른 지역의 노조들에게 제1세계 노조와 같은 노동자 국제주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이를 시도하지 못할 경우에 그들에게 자괴감마저 안겨주고 있다(Munck and Waterman, 2010). 최근 들어 노동지리 연구자들은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할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저발전국가의 노조들에 적합한 전략으로서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local community unionism)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일한 지리적 장소 안에서 공통의 정체성, 젠더, 민족성 혹은 공통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와 노조가 다른 시민사회조직과 행위자들로부터 협력을 끌어내는 전략”이다(황진태, 2011b: 148; Tattersall, 2008: 417; Lier, 2007: 827).³⁾ 가령, 초국적 기업인 GM대우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키자 노동자 국제주의를 시도할 수 있는 연대의 자원이 부족했던 GM대우 비정규직 노조는 인천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결국 재고용이 되는 승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처럼 제1세계 이외 지역에서의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제1세계에서의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의 유용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1세계에서의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 연구로는 Tufts(1998), Walsh(2000), Fine(2005), Black(2005)을 참조하라.

(황진태, 2011b). 본 연구도 제1세계 이외 노동자들의 유용한 전략으로서 지역 공동체 노동운동에 주목한다.

둘째, 기존 연구는 파업이라는 특정 국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파업에서의 승리는 노동자가 능동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파업 사례에만 주목하는 것은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명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자는 마치 갈등 국면에서만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고, 일상적인 작업장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객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본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로서 경제공간의 다양한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역할과 가능성을 충분히 조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작업장과 파업이라는 특정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선형적으로 전제하고, 그 시스템 밖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쌍생아처럼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하였다(백승욱, 2006). 최근에는 비트(bit)에 기반한 ‘정보 자본주의’(강남훈, 2002; 강남훈 외, 2007) 혹은 ‘인지 자본주의’(조정환, 2011)가 대두되고 있지만 가치실현에 있어서 산업자본의 활동은 여전히 핵심적이다(제습, 2000: 289). 마르크스가 생존하던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착취는 주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일컫는다. 기존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은 착취로 획득한 잉여를 어떻게 분배/재분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분배의 실현을 통해서 착취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Ruccio, 2010). 이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존속을 전제하는 것이다. 노동지리학 연구도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서 누가 파이를 얼마나 얻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경제학 연구와 동일한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나 착취는 잉여가 어떻게 분배, 재분배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잉여

를 전유하느냐(appropriate)에 의해 자본주의적 착취와 공산주의적 비(非)착취가 구분된다(Ruccio, 2010: 337, 339). 이는 노동자가 작업장을 어떻게 전유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표적 공간인 작업장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적 경제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가와 직결된다.

2)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에 대한 검토

대안적 경제공간의 시도와 연구는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확인된다 (Peuter and Dyer-Witheford, 2010; Spieczny, 2004: Chapter 4). <표 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를 시장질서로 정의할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의 50%가 넘는 ‘다양한 경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구상

<표 1>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

거래	노동	사업
시장	임금	자본가
대안적 시장 공공재의 판매 윤리적 ‘공정무역’ 시장 지역의 교역체계 대안 화폐 지하 시장 생활협동조합 방식의 교환 물물교환 비공식 시장	대안적 지불 노동 자영업 협업(Cooperative) 계약직(Indentured) 호혜적 노동 비금전적 실물 지급 복지를 위한 일	대안적 자본가 국영 기업 그린 자본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 비영리
비시장 가정경제 내 흐름 선물 교환 토착민 교환 국가의 배분 국가의 지출 수집 어로, 수렵, 채취 절도, 밀렵	부불 노동 가사노동 가족 돌봄 동네 일 자원봉사 자기-보장노동 (Self-provisioning labor) 노예노동	비자본가 공동체적 독립적 봉건적 노예적

출처: Gibson-Graham(1996); 최영진(2010: 119 재인용)

에는 유일하게 자본주의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본주의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양한 비자본주의적 전통과 언어들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Gibson-Graham, 1996; 최영진, 2010: 118).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다른 경제, 중간 경제, 제3섹터, 시민공동체,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생활협동조합 등의 용어들은 각각의 의미의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도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에 반대하고, 그것의 폐해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이외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신명호, 2009: 25; 고진, 2005; Gibson-Graham, 1996; 푸트남, 2000; 김상준, 2008). 하지만 최근 십 수 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가 활성화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다.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화에 대한 단호한 옹호가 이루어지던 시대로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경제적 재생산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적 권력이 붕괴되면서 비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시도들도 함께 쇠락했지만 2000년대 발생한 경제위기는 강고해보였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렸고,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사고하고 수행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게 되었다(Leyshon and Lee, 2003). 국내에서도 대안적 경제공간에 대한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실업과 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던 까닭에 시장 자본주의에 대응”(신명호, 2009: 22)하기 위하여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구도완, 2009; 장원봉, 2006; 장원봉, 2010; 엄은희, 2011).

<표 2>에서 보듯이 사회적 경제⁴⁾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영역을 포괄한다(신명호, 2009: 24).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비자협동조합인 생활협동조합에 많이 주목하고, 생산 부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는 국내 소개되는 해외사례가 주로

4) 국내서는 대안 경제보다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표 2 > 경제활동 영역별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예

경제활동의 영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예
생산	사회적 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사업조직, 노동자협동조합 등
소비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교환	지역화폐, 아나바나 운동 단체 등
분배	자선모금단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등

출처: 신명호(2009: 36).

유럽 및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에 치중되어 있고(푸트남, 2000; 황덕순, 2004; 엄은희, 2010; 박현숙, 2006; 조은숙, 1995), 검증 가능한 국내사례도 생활협동조합이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Karatani Kojin)이 지적하듯이 잉여가치는 생산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유통(소비) 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작동시키는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진, 2005: 481). 불매운동에서 보듯이 소비자로서 노동자는 작업장에서의 투쟁에서 필요한 희생 없이도 자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진은 유통과정의 중요성 때문에 생산과정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소비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역 통화에 의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아래서 생산-소비 협동조합을 조직해 나아가는 것”(고진, 2005: 490 고덕체 인용자 주)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자 협동조합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는 궁극적으로 대안적 경제공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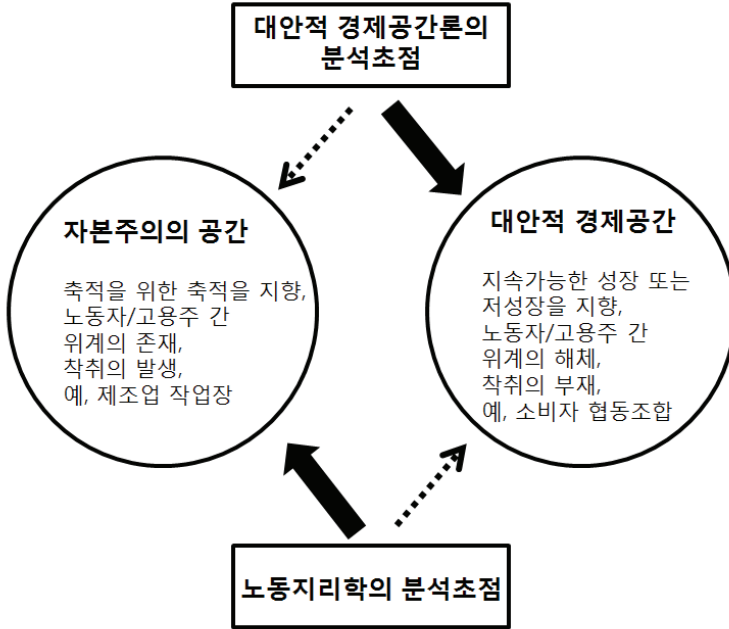
3) 대안적 분석틀: 자본주의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의 생산 가능성

- 5)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사례로 소개되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생산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생산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Ranis, 2006: 22).

지금까지 노동지리학과 대안적 경제공간론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살펴 보았다. 먼저, 노동지리학을 통해서는 자본의 시각이 아닌 노동자의 시각에서 노동자도 능동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기존 노동지리 연구는 파업이라는 특정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본주의 시스템 밖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공간론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적 경제공간론은 소비자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경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는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화를 시도한 노동지리학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노동지리학과 대안적 경제공간론의 결합을 통해서 두 논의의 맹점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여기서 필자가 자본주의의 공간 혹은 대안적 경제공간을 언급할 때 사용한 ‘공간’ 용어는 단순히 사회현상의 배경 혹은 지리학자로서 당위적으로 사용하는 메타포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공간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공간은 선형적으로 주어졌거나 자기완결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Harvey, 1982; 백승욱, 2006; Hall and Soskice, 2001). 축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공간인 작업장을 생각해보자. 리처드 워커(Richard Walker)의 말처럼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이루어지는 “고용은 공간적인 문제”다(Walker, 1985: 182). 자본가는 생산을 위하여 생산시설과 같은 고착된(fixed) 자본을 투자해야만 하고, 노동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생산수단과 함께 자본가로부터 구입된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숙련, 창조성을 필요로 하며, 이것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자본을 상대로 한 저항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고용은 단순히 공간 안(in)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

<그림 1> 기존 노동지리학과 대안적 경제공간론의 분석초점



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간을 활용(use)하는 것이다(Walker, 1985: 180~182).

또한 대안적 경제공간도 어떤 특정한 형태가 주어져 있거나, 현존 자본주의 ‘이후’의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의 최근 형태인 신자본주의가 단수로서 단일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면, 이에 맞서는 대안적 경제공간 논의는 신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단수로서의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공간들 (<표 1> 참조)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장소(place)’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Leyshon and Lee, 2003: 4).

이처럼 특정한 경제공간의 생산은 역사적으로 사회세력들 간의 끊임 없는 경합의 산물이며, 이 경합의 과정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케일의 정치(politics of scale)로 이해할 수 있다(Park, 2005). 특정 사회세력들(자본 혹은 노동자)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 특정 사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세력이 약하여, 동원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 위치한 행위자들을 끌어오는 스케일 뛰어넘기(jumping scale)를 들 수 있다. 가령, 유럽에 본사를 둔 한 초국적 기업이 아시아에 위치한 분공장(branch plant)을 운영하는 와중에 비용절감을 명목으로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분공장의 노동자들이 반발하여 파업이 발생하고, 본사에서는 공장폐쇄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파업의 와중에 분공장이 위치한 유치국에서는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분공장의 노동자들은 본사가 위치한 초국적 기업의 모국으로 가서 시위를 하거나, 국제적 노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파업문제가 지역적 의제에서 국제적 의제로 확대시키는 등의 스케일 뛰어넘기 전략으로 본사를 압박하여, 공장폐쇄를 철회할 수 있다(황진태, 2011c).

보다 구체적으로 케빈 콕스(Kevin Cox)는 스케일 뛰어넘기를 ‘의존의 공간(spaces of dependence)’과 ‘연대의 공간(spaces of engagement)’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 의존의 공간은 특정 지역에 위치한 행위자들이 그 지역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공공사업의 경우 가스관, 발전소, 상하수도과 같은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의 투자에는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고, 이러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존적이게 된다(Cox and Mair, 1988).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경우, 의존의 공간에 속한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넓은 연대와 동원을 끌어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존의 공간을 벗어나 있는 다른 행위자들과 연대가 만들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연대의 공간이라고 한다(Cox, 1999).

콕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짤 수 있다. 한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어떠한 이유(이윤감소, 강경노조 등)로 인해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공장 노동자들은 경영자를 대신하여 공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주권리는 현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공간인 작업장에 존재하는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위계와 착취의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right to work)를 자본의 재산권(property)보다 우선시킨다는 점에서 그동안 자본주의의 공간에서 이익을 획득해온 자본일반을 비롯한 사회 지배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자 자주권리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주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장의 벽을 넘어서 지역과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공장이 그 지역에서 고용, 지역시장, 지역상품시슬과의 연계, 지역사회활동(가령,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짓기 등)이 심화될수록 그 기업의 지역의존성(local dependence)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도 기업에 의존하는 수준(가령, 고용)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의존적인 행위자들이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지방정부도 기업의 운영이 잘될수록 자신들의 재정상황에 이롭기 때문에 지역의존적이다. 이처럼 동일한 의존의 공간에 위치한 지역의존적인 행위자들(공장 노동자, 지역주민, 지방정부)은 어떤 계기로 인하여 공장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 지역 수준에서의 연대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국가가 자주권리를 용인하도록 하는 압박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주권리와 대립되는 기존 사회세력들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자들의 의존의 공간은 자주권리를 해체하려는 위협에 노출된다. 특히, 기존 자본주의 공간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인 재산권의 보장은 주로 국가가 조절하기 때문에 국가 스케일에서의 변화(즉,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자본의 재산권보다 우선하게 되는 경우)가 없이는 안정적인 자주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 스케일에서 국한되었던 운동을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하

여 전국적인 연대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를 압박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capitalist state)로서 국가는 자본이 주도하는 축적전략에 조응해야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는 특정 세력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비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보장해야하는 국민국가(nation state)로서도 기능한다. 즉, 국가는 자본의 축적전략과 더불어 국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해야만 한다. 자주관리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저항의 수위가 높아지고, 동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정책선택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아진다. 더구나 자본이 공장을 폐쇄하고, 축적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주관리를 통하여 축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국가가 자본일반의 재산권에 비하여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대안적 분석들을 바탕으로 다음 사례연구에서 살펴볼 아르헨티나의 노동자 자주관리의 경험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자본주의 경제공간인 작업장이 어떻게 노동자들에 의해 대안적 경제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사례연구

1)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화

근대화 시기동안 남미국가들은 개입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서 성장했었지만, 1980년대 들어서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피트 외, 2007).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고, 부(富)가 상위 10%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었고,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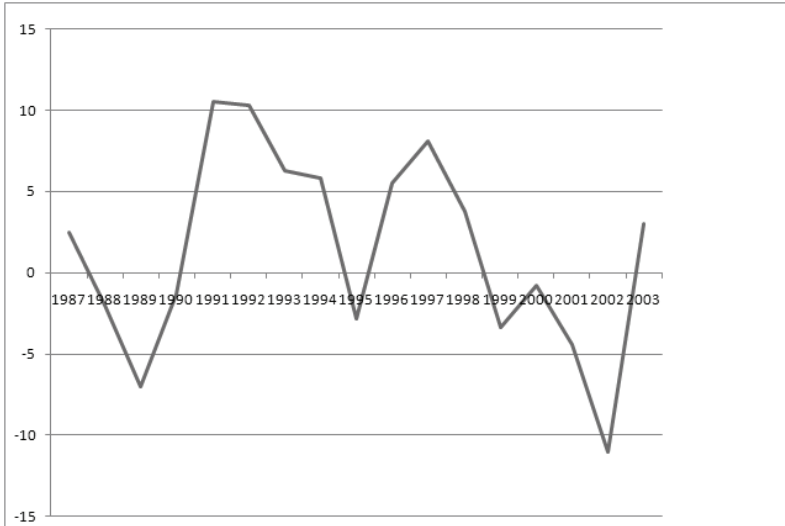
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했다(Portes and Hoffman, 2003). 특히,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로 손꼽힌다(피트 외, 2007: 180).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통해서 성장하였지만,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독재정권에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이 조장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씨앗이 움트게 되었다(Ranis 2004: 23). 1983년에 들어서는 군부독재정권이 종식되고, 급진당의 알폰신 후보가 집권하면서 민선정부가 출범하였다. 알폰신 정권은 군부독재시절부터 조장되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장의 회복, 진보적 소득배분, 인플레이션 축소를 목표로 1985년부터 『아우스트랄 플랜(Plan Austral)』을 추진했다(이성형, 1992; 이영조, 1993: 56~60).⁶⁾ 이 계획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었던 국영부문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지만, 기존 공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박병수, 2004: 326~327). 계획을 추진한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경제성장을 호전시키는 듯 했지만, 1989년에만 4,923%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알폰신 정권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했던 아우스트랄 플랜의 한계를 인식하여, 공기업 민영화를 시도하는 와중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적 동요를 촉발시켰다. 결국, 식량폭동과 정치 불안의 우려로 알폰신은 남은 임기 6개월을 못 채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1989년 7월 페론당의 까를로스 메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박병수, 2004: 328; 김원호, 1993: 20).

메넴은 페론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자본과 국내자본이 선호하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경제부 장관직에 아르헨티나가 모국인 초국적 자본 봉헤이 보른 그룹의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그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성형, 2002: 19). 흥미롭게도 전임정권에서는 국내자본들의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 시

6) 아우스트랄 플랜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이성형(1992)을 참조하라.

<그림 2> 1987~2003 아르헨티나 GDP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IMF(2011).

도가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메넴 정권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로부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처방으로써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획득하는데 성공하면서 전임정권보다 민영화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박병수, 2004: 345~346).

그리하여 메넴 정권은 1989년 8월 『국가개혁법(La Ley de Reforma del Estado)』을 제정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긴급경제조치법(La Ley de Emergencia Economical)』을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1993년 9월에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대상을 모든 부문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04: 49).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메넴 정권은 전화회사, 항공사, 석유회사, 전력회사를 민영화하고, 철강, 석유화학과 가스회사를 민간에 넘겼다(이성형, 2002: 20).⁷⁾

1993년 500개 대기업 중에서 아르헨티나 국내자본이 280개, 외국인 소유가 220개에서 2000년에는 314개가 외국인 소유이고, 186개가 국내 자본소유인 구도로 역전되었다. 이윤을 비교하면 국내기업은 1993년 2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3억 6천 5백만 달러로 이윤이 감소한 반면, 외국기업들은 1993년 4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7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Ranis, 2004: 11~12). 아울러 1990년대 들어 메넴 정권에서는 페소와 달러를 일대일로 고정시킨 태환법으로 인해 초국적 자본의 아르헨티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아르헨티나 국내 중소기업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국내공장들은 해외로부터 수입된 부품들을 단순조립하는 공장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시설, 서비스, 채굴산업에서도 해외자본의 투자가 늘어났고, 아르헨티나 경제의 탈산업화는 실업률, 빈곤,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면서 급기야 이중사회(dual society)를 야기하였다(Ranis, 2006: 13; Ranis, 2005: 8).⁸⁾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2001년 경제위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2) 노동의 위기와 저항의 촉발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 노조는 높은 노조 가입률과 페론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향상시켰다(이계현, 1996; 정진영, 1993).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는 1930년대 이전까지 농축산물 수출에 의존하다가 1930년대 초 수출무역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제조업에 기반한 수입대체

7) 민영화 초기인 1992년에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수입이 170억 달러에 달하면서 외채상환과 국내투자를 위한 재원이 조성되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김원호, 1993: 23). 하지만 이후의 결과는 대부분의 수입이 외채상환에 치중되고,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8) 군부독재정권 이전인 1974년 최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최하위 10% 계층의 5배였지만, 1991년에는 15배로, 2002년에는 30배로 늘어났다. 실업률은 25%에 달했다(Ranis, 2004: 11~12).

산업을 장려하게 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숙련노동력을 주축으로 아르헨티나 노조는 자본과 국가에 대한 협상력이 높았다. 또한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들의 높은 구매력 덕분에 국내시장을 통해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이 때문에 30여 년 전 아르헨티나 노조의 힘은 서유럽 선진국들의 노조에 필적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anis, 2004: 21~22; 이계현, 1996: 63). 그러나 군부독재정권 시절인 1976년부터 83년까지 3만 명의 노동활동가들과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그 힘은 약화된다(Trigona, 2009). 군부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민선정부인 알폰신 정권이 집권하면서 노조운동 발생률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후임 정권인 메넴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메넴 정권 이전에 34%에 달한 노조가입률은 2002년에는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Ranis, 2004: 23). 특히, 메넴 정부가 수립한 고용법과 노동유연화법은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1년에 수립된 고용법으로 인해 기업은 노조와 맺은 집단협약과 상관없이 하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파산을 피한다는 빌미로 노동자 해고가 용이해졌다. 1995년에 통과된 노동유연화법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40명 이하 기업들에 대해 고용주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재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였다(Ranis, 2006: 13).

메넴 정권에서 민영화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다(Palomino, 2003). 1993년 12월 16일 산티아고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고, 체불임금과 연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공무원, 초등 및 중등 교사들, 은퇴자, 학생, 노조 지도자 등 5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도심시위가 있었다(Auyero, 2003). 1999년 12월 텔 라 루아 정부는 “부패 청산과 깨끗한 정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메넴 정권에서 추진된 태환법과 민영화 정책이 외국투자자와 금융기관의 감시를 받고, 야당인 페론

당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새 정권의 개혁행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권으로 비판받기에 이른다(이성형, 2002: 12~14, 40).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메넴 정권에서 누적된 부패로 얼룩진 국가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면서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된 2001년 12월 냄비시위⁹⁾가 발생하였다(Ranis, 2005: 5; Schoijet, 2005: 320). 앞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시위가 민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부문에서의 반발이었다면, 2001년 시위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초래된 사회양극화에 대한 반발로서 참여주체의 범위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다(Palomino, 2003). 냄비시위를 촉발시킨 결정적인 뇌관은 공무원 임금의 13% 삭감, 150만 명의 예금동결, 모든 거래의 신용카드 의무화였다(Schoijet, 2005: 320; 이성형, 2002: 40~41). 냄비시위의 결과, 27명 사망, 2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데 라 루아 대통령은 2001년 12월 20일에 중도 사퇴한다. 이 시위는 과거 위로부터 추동된 사회주의 운동이나 민중운동과는 달리, 가난한 자, 노동자, 실업자, 은퇴자, 학생, 중산층, 전문층 등의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밑으로부터의 시위였다(Ranis, 2005: 6).

지금까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아르헨티나 국가 국내 자본들이 시도한 정책들이 실패하고, 그 실패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전가되었음을 확인했다.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의 시도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더 이상 국가와 자본에게만 맡기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출현하게 된다.

3) 시논 노동자들의 공장 회복하기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자가 자주관리하는 기업형태는 탈산업화가 처음

9) 시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기는 것을 보고서 냄비시위로 불리게 됐다.

시작된 군부정권(1976년부터 1983년)에서 출현했지만, 당시 기업들은 1990년대 메넬정권의 교역자유화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사라졌었다(Palomino, 2003: 77). 그러나 노동자들은 1990년대 말부터 공장폐쇄가 급증하면서 자본가와 고용주로부터 버려진 공장에 들어가서 다시 자주관리를 전개한다.

여러 시도들 중에서 특히, 사논 세라믹 공장 노동자들의 활약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파타고니아(Patagonia)의 네우켄 주(Neuquén Province)에 위치한 사논 세라믹 공장은 국가로부터 무상토지제공, 세금면제, 가스 및 전기에 관한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1979년 4개의 생산라인으로 시작되었다(Petras, 2003: 2257). 2000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사논 공장은 매해 평균 4천 400만 달러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생산품의 80% 이상을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10개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아르헨티나 최대의 세라믹 공장으로서 성장하였다(Trigona, 2009; The Lavaca Collective, 2007: 52).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공장 설립자인 루이스 사논(Luis Zanón) 사장은 2001년 10월 공장을 폐쇄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폐쇄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논 사장은 공장폐쇄 이전에 세계은행과 네우켄 주정부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총 4500만 미국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장을 버린 것이다.¹⁰⁾ 이러한 사익추구의 정황은 공장폐쇄 직전 고강도의 노동착취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한 것을 통해서도 유추된다. 사논 사장은 1998년에만 노동자 100명을 해고했고, 공정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면서 월 25~30건의 사고와 2000년 6월에는 호흡기와 관련된 심장마비로 1명이 사망¹¹⁾하는 등의

10) 루이스 사논은 까를로스 메넬 대통령과 네우켄 주지사와의 절친한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을 끌어올 수 있었다. 그는 회사 수익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사논이 1990년대 금융시장에 투자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주들의 지대추구 행위는 루이스 사논 개인의 특성이기보다는 메넬과 텔 라 루아 정권하에서 기업 소유주들에게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었다(The Lavaca Collective, 2007: 52).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비용절감 수단들을 사용한 것이다(Ranis, 2006: 12; Trigona, 2009; Petras, 2003: 2257).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냄비시위라는 전사회적인 격동 속에서 2001년 10월 고용주가 버렸던 공장을 노동자 주도로 운영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노동자들이 저절로 자주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의 공장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한 정치적 경합을 거쳐야만 했다. 선언 직후, 노동자들은 녀 달 동안 공장 밖에서 시위를 위한 캠프를 만들었고, 공장을 점유한 이유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했으며, 네우겐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위 와중에 3월에 들어서 법정은 고용주 없이 노동자들의 통제 하에서 공장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Trigona, 2009). 2002년 5월에는 정부의 파산법 부분개혁으로 노동자 다수가 동의한다면 노동자들이 생산을 가동하는 것이 가능해졌다(Ranis, 2006: 14). 노동자가 공장 운영을 맡게 된 이후, 노조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노조의 리더는 순환형으로 선출되었으며, 모든 의사결정은 매주 개최되는 노동자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정에 따랐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¹²⁾ 공장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시논 노동자들은 지역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장의 초기 고용인원을 260명에서 475명으로 늘렸고, 생산성도 높아졌다(Ranis, 2006: 89). 그간 생산품의 80%를 해외로 수출하던 유통경로는 공장이 위치한 지역과 국내시장으로 돌려서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품들을 공급하면서 지역사회의 착근성도 높아졌다(Trigona, 2009).

이처럼 시논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는 노동자 스스로 생산한 잉여를 전유(appropriate)함으로써 착취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부정의(不正義)를 사

11) 사망자는 20살 젊은 남자였는데, 사고 당시 회사 안에 있었던 응급실에는 산소 호흡기조차 없었다(The Lavaca Collective, 2007: 54~55).

12) 다만 기계관리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나 야간 공장 경비와 같은 경우 기본급의 10%를 더 받는다(Ranis, 2010: 91).

라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uccio, 2010: 337, 339). 다시 말해, 노동지리학의 측면에서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대표적 경제공간인 작업장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앞서 필자가 제기한 자본주의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생산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케일의 정치의 측면에서 이런 시도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시는 공장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요인들: ‘스케일의 정치’의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의 시도들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시는 공장 사례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일회적 시도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는 공장은 이전 사례들과 차별화된다.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장 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장운영이 안정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일차적으로 공장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다. 시는 공장은 2001년 폐쇄 이전까지 높은 수요와 질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였고, 이미 상당한 생산규모와 최신 기술을 갖춘 덕분에 세라믹 분야에서 선두주자였다(Trigona, 2009; Vega, 2011). 하지만 단순히 베버(Alfred Weber)식의 공업입지론적 시각에서 공장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만으로 시는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공장운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핵심적으로 노동자들이 버려진 공장을 인수하여, 노동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장을 소유했던 소유주 또는 자본의 재산권(property)과 정면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 공장이 버려졌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장에 대한 재산권은 소유주가 보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권에 기반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재산권보다 다른 권리를 우선하게 되

는 것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세력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경합에서 스케일의 정치가 발생한다. 필자는 스케일의 정치의 측면에서 시는 공장의 성공적인 자주관리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첫째, 노동자와 지역사회 간 연대의 공간의 형성, 둘째, 지역에서 전국적 수준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하여 재산권보다 노동할 권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선택성의 변화, 이상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1) 노동자와 지역사회 간의 ‘연대의 공간’의 형성

흔히 지구적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 자본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 비하여 지역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취약할 것으로 인식된다(Gibson-Graham, 200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세계 노조들을 중심으로 국제노동조직과의 연대나 지역문제를 지구적인 관심사로 확대하기와 같은 지역 스케일로부터 지구적 스케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 전략을 활용해왔다(Wills, 1998; Smith, 1993). 하지만 제1세계와 달리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노조들은 스케일 뛰어넘기 전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가 지구적 스케일에서 작동되더라도 그것은 실제 특정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각 지리적 맥락에 따라서 국제적인 연대보다는 지역에서의 연대가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시는 노동자들은 지구적 스케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 전략보다는 작업장으로부터 지역스케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를 하는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을 취하였다.¹³⁾

13) 시는 노동자들의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은 지구적 스케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시는 노조의 리더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대규모 사회운동 시위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서 만난 조직들의 지지를 통해서 국제적인 탄원의 방안으로 열흘 동안 시는 노조를 지지하는 1만 5천 명의 성명서를 모으기도 했다(Ranis, 2005: 14; petitiononline.com/zanon.html).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연대가 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지역 공동체 노조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리적 장소 안에서 공통의 정체성, 젠더, 민족성 혹은 공통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바탕”되어야 한다(황진태, 2011b: 148). 만약 지역 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는 어려워진다. 사논 공장이 위치한 네우겐 주는 이념적 갈등이나 당파정치가 약하고, 가족, 이웃, 사회조직 간의 사회 네트워크가 강력하면서, 광범위한 공동체 지지가 존재하였다(Petras, 2003: 2258). 이러한 로컬리티의 특성 덕분에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논 노동자들은 공장을 인수한 이후로 기존 생산품의 80%에 달하던 해외 유통구조를 국내 및 지역으로 전환했고, 사논 노동자들은 생산품에 필요한 원료, 기계부품, 음식, 작업복 등을 가능한 지역에서 구매하고자 했으며, 사논 공장의 구매력은 지역 소매상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Petras, 2003: 2257).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인수 이후 지역출신의 노동자 고용을 늘리면서 지역경제와의 착근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산한 타일의 일부를 지역의 학교, 병원, 보육시설, 일반가정의 건설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였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지역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긴밀히 유지하였다(Ranis, 2006; Trigona, 2009; Ranis, 2010). 또한 자신들의 투쟁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립 교사, 간호사, 대학생들의 투쟁에도 사논 노동자들이 참가하면서 연대를 표명하였다(Ranis, 2010: 90).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사논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 지역주민들도 사논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2003년 4월 8일 공장을 재탈환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막기 위하여 네우겐에서는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공장을 지키러 왔었다.¹⁴⁾ 이러한 연대는 사논

14) 심지어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조차 그들이 배급받은 음식을 사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The Lavaca Collective, 2007: 56). 본 연구에서 필자는 현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노동자 간의 유대 수준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논 노동자들의 발언이 담긴 단행본(The Lavaca Collective, 2007)과 다큐멘터리 영화 <The

노동자들의 공장 운영의 법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한 정치적 경합에서도 중요한 힘이 된다.

(2) 재산권보다 노동할 권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선택성의 변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보장한다. 재산권은 자본주의를 공산주의와 구별하는 핵심적인 권리다(미세스, 1984). 이 때문에 마르크스와 같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재산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사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를 내세우면서 소유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폐쇄된 공장을 열게 된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재산권과의 정면충돌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주아들의 집행위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적으로 밥 제습(Bob Jessop)은 국가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경합하는 정치전략들의 장(site)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제습, 2000). 그에 따르면 사회세력들의 경합에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가변적이다. 따라서 메뎀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 국가형태도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노동자들이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공장을 인수하기 이전까지 그들의 목표는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는 요구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공장을 점유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Palomino, 2003: 82). 그리하여 국가가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공장운영을 허용한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2005년 7월 7일 사노동자들은 그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거리행진을 시도하였다. 행진에서 사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 공

Take>에서 지역주민들의 사노동자들에 대한 연대 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유대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했다.

무원, 교사, 교수, 학생, 시민, 실업자 조직 등이 포함된 광범위한 공동체의 지지를 받았다. 시위에서 지역주민들은 사는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성립할 권리의 인정을 국가에 요청했다. 이 시위 덕분에 2005년 10월 법정은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운영연장을 허가하게 된다. 1년 후인 2006년 10월 만료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또다시 3년을 연장하는데 성공한다(Trigona, 2009). 결국, 2009년 8월 12일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연대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서 공장의 전유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Ranis, 2010: 89). 이처럼 국가를 통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적 경합의 결과, 노동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국가도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를 제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Palomino, 2003).

특히, 시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메넴 정권 10년 동안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2001년 12월 냄비시위 이후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새 정부인 키르츠네르 정부에게는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그리하여 군부독재정권 시기동안 인권침해의 자행을 종결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작으로 몇몇 은퇴한 군부관료들이 체포되었고, 보건과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도 늘렸다.¹⁵⁾ 키르츠네르 정부는 노동자들이 점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재탈환을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지 않았고, 임기 초에 노동자들의 전유를 2년간 인정하는 일시적 조치를 허용하고, 38개의 공장이 새로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권이 공장을 점유한 노동자들과 타협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Schoijet, 2005: 326). 이러한 국가의 결정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부문에서의 축적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본이 공장을 버리는 상황에서 축적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용인하게 된 것

15) 2003년 8%의 성장률을 나타낸 경제회복도 수출증가와 평가절하 덕분이고, 실업률이 21.4%로 고용도 별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키르츠네르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다(Schoijet, 2005: 329; 이성형, 2002).

이다(Palomino, 2003: 86).

이처럼 키르츠네르 정권동안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변할 것으로 보였던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문제시하는 것과 함께 노동할 권리가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자본주의 공간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의 생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2001년 냄비시위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노동자의 자주관리를 보장하는 국법(national law)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자주관리 사안을 정치적 상황과 연동하고, 각 사례별로 접근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산수단의 전유(appropriation)의 메커니즘이 공식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Palomino et al., 2010: 261).

정리하면,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에 대해서 항상적으로 국가정책이 가변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라는 특정한 국면 속에서 첫째, 노동자와 지역사회 간의 연대의 공간의 형성, 둘째, 지역 스케일에서 전국적 수준으로의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한 국가의 정책선택성의 변화를 유도한 사실을 통해서 현존 자본주의 공간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의 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최근에는 파업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황진태, 2011a).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아르헨티나 시는 공장과 지역사회간의 연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공장과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한정되고, 현지답사를 병행하지 못하면서 역동적인 사회-공간의 변증법적 측면을 충분히 살펴 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노동자를 자본주의 경제공간을 생산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는 노동지리학과 자본주의를 넘어선 다른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공간 론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대안적 경제공간 만들기의 가능성을 논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첫째,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형성과정에서 자본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이고, 우세하며, 능동적인 주체인 반면에 노동자는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수동적 객체라는 전제를 일반화할 수 없으며, 둘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로 매개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해체하고 대안적 경제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 현재 아르헨티나 전체 협동조합에서 노동자 협동조합의 비중은 9%였지만, 2002년에는 전체 비중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또한 연방정부와 몇몇 주정부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Ranis, 2005: 13, 20). 2008년 현재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170개 중에서 7%만이 중단되고, 93%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Vega, 2011: 7).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는 기존의 여타 협동조합 사례와는 달리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대안적 생산양식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anis, 2010: 91; Vega, 2011). 이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던 영국의 전(前) 총리 마가렛 대처가 말한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는 TINA(There Is No Alternative)론을 기각시키는 설득력 있는 사례이다.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경험은 한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도 노동자 자주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키친아트와 몇몇 시내버스 회사들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미개척 분야인 노동지리학과 대안적 경제공간 연구의 물꼬가 트길 기대해본다.

❖ Abstract

Making Alternative Economic Spaces under the Capitalism:
An Experience with Workers-Run Companies in Argentina

Hwang, Jin-Tae

Informed by debates on labor geography, which regards worker as a key actor in shaping landscape of capitalism and alternative economic space which orients to another economic system without worker's exploitation beyond existing capitalism,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an alternative economic space under the capitalism. To confirm the argument empirically I go on to examine Argentina's experience with worker-run companies in 2000s after the financial crisis.

Keywords: Argentina, Labor Geography, Alternative Economic Spaces,
Workers-Run Company, Politics of Scale

참고문헌

- 강남훈. 2002.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 강남훈 외. 2007. 『정보제 가치논쟁』. 한신대학교출판부.
- 구도완. 2009.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창비.
- 김상준. 2008. 「중간경제론: 대안경제의 논리와 영역」. 《경제와사회》, 80호.
- 김원호. 1993. 「메넴-까발로 경제개혁의 운용 현황과 과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호.
- 박병수. 2004. 「신자유주의 경제재편의 사회적 수용과 국가의 역할」. 《라틴아메리카연구》, 17권 4호.
- 박현숙. 2006.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과제와 전망」. 《한국협동조합연구》, 23권 2호.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린비.
- 손호철. 2009.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권 2호.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통권 75호.
- 엄은희. 2010. 「유럽 소비자협동조합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사회학연구ECO》, 14권 2호.
- 엄은희. 2011. 「중도좌파 정부 집권기 로마시의 ‘다른 경제’ 실험: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정책에 주는 함의」. 《공간과사회》, 통권 35호.
- 이계현. 1996. 「아르헨티나 노동운동과 페로니즘의 기원」. 《서양사연구》, 19호.
- 이성형. 1992. 「민선정부하의 경제정책: 알폰신 정부의 아우스트랄 계획에서 메넴정부의 경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지역연구》, 1권 2호.
- 이성형. 2002.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역사비평사.
- 이영조. 1993.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와 군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호.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장원봉. 20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정진영. 1993. 「아르헨티나 현상의 문화적 기원: 페론리즘의 한계와 문화적 유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4호.
- 조은숙. 1995.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근황과 시사점: 오사카 지역 방문기」. 《도시와 빈곤》, 18호.
- 조정환. 2011. 『인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무리.
- 조희연. 2010. 「‘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97년체제의 ‘이중성’과 08년체제하에서의

- ‘헤게모니적 전략’에 대한 고민.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호.
- 최영진. 2010. 『희망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차이” 드러내기: 자본주의 공간성에 대한 Harvey와 Gibson-Graham 비교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권 1호.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한국수출입은행. 2004. 『아르헨티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 황덕순. 2004. 『이슈별 심층분석 :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확산과 국가의 지원』. 《국제노동브리프》, 2권 6호.
- 황진태. 2011a.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사회》, 90호.
- 황진태. 2011b. 『노동자 국제주의는 만병통치약인가? 로컬 공동체 노조운동의 가능성과 도전: GM대우 비정규직 노조 투쟁을 사례로』. 《로컬리티인문학》, 6호.
- 황진태. 2011c. 『노동지리의 이론과 실제: 2003년 한국 네슬레 파업을 사례로』. 한국공간환경학회 이론세미나 강연논문. 2011년 5월 2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 제습, 밥.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유범상/김문귀 역. 한울.
- 고진, 가라타니. 2005.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서기』. 송태욱 옮김. 한길사.
- 미세스, 루드비히. 1984.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김진현 역. 한국경제연구원.
- 피트, 리처드(편). 2007. 『불경한 삼위일체: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박형준/황성원 옮김. 삼인.
- 푸트남, 로버트.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안청시 외 옮김. 박영사.
- Auyero, Javier. 2003. “The Geography of Popular Contention: An Urban Protest in Argentina.” *Canad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28(55-56), pp.37~70.
- Barry, Bill. 2008. “Review: Sin Patrón: Stories from Argentina’s Worker-Run Factories.” *Labor Studies Journal*, 33(3), pp.333~334.
- Bergene, A., Endresen, S., Knutsen, H. 2010. *Missing Links in Labour Geography*. Ashgate.
- Black, Simon J. 2005. “Community unionism: a strategy for organizing in the new economy.” *New Labor Forum*, 14(3), pp.24~32.
- Castree, N. Coe, N. Ward, K. and Samers, M. 2004. *Spaces of Work: Global Capitalism and the Geographies of Labour*. SAGE Publications.
- Dicken, Peter. 2010. *Global Shift: Mapping the Changing Contours of the World Economy*. Sage.
- Evans, Peter.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ne, Janice. 2005. “Community Unions and the Revival of the American Labor

- Movement.” *Politics & Society*, 33(1), pp.153~199.
- Gibson-Graham, J-K. 199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Univ Of Minnesota Press.
- Gibson-Graham, J-K. 2002. “Beyond global vs. local,” Andrew Herod and Melissa Wright(eds.). *Geographies of Power: Placing Scale*. Blackwell Publishing.
- Peuter, Greig de, Nick Dyer-Witthford. 2010. “Commons and Cooperativ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pp.30~56.
- Hall, Peter and Soskice, David.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Blackwell.
- Herod, Andrew. 2001. *Labor Geographies*. Guilford Press.
-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 검색일 2011.8.21.
- Leyshon, Andrew, Roger Lee. 2003. “Introduction: Alternative Economic Geographies.” Leyshon, Andrew, Roger Lee and Colin Williams. *Alternative Economic Spaces*. Sage Publications.
- Lier, David. 2007. “Places of Work, Scales of Organising: A Review of Labour Geography.” *Geography Compass*, 1(4), pp.814~833.
- McGrath-Champ, Susan, Andrew Herod, Al Rainnie(eds.). 2010. *Handbook of Employment and Society: Working Space*. Cheltenham: Edward Elgar.
- Munck, Ronaldo. and Waterman, Peter. 2010. “Global unions versus global capital: or, the complexity of transnational labour relations.” McGrath-Champ, Susan, Andrew Herod, Al Rainnie(eds.). *Handbook of Employment and Society: Working Space*. Cheltenham: Edward Elgar.
- Palomino, Hector. 2003. “The Workers’ Movement in Occupied Enterprises: A Survey.” *Canad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28(55-56), pp. 71~96.
- Palomino, Hector, Ivanna Bleynat, Silvia Garr, Carla Giacomuzzi. 2010. “The Universe of Worker-Recovered Companies in Argentina(2002-2008): Continuity and Changes Inside the Movement.”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pp.252~287.
- Panayotakis, Costas. 2009. “Review: Sin Patrón: Stories from Argentina’s Worker-Run Factories.” *Rethinking Marxism*, 21(2), pp.315~317.
- Park. B-G.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pp.397~414.
- Petras, James. 2003. “Argentina: 18 Months of Popular Strugg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e 7, pp.2255~2260.
- Portes, Alejandro, Kelly Hoffman. 2003. “Latin American Class Structures: Their

- Composition and Change during the Neoliberal Er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38(1), pp.41~82.
- Ranis, Peter. 2004. “Rebellion, Class, and Labor in Argentine Society.” *WorkingUSA: The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7(4), pp.8~35.
- Ranis, Peter. 2005. “Argentina’s Worker-Occupied Factories and Enterprises.” *Socialism and Democracy*, 19(3), pp.1~23.
- Ranis, Peter. 2006. “Factories without Bosses: Argentina’s Experience with Worker-Run Enterprises.” *Labor: Studies in Working-Class History of the America*, 3(1), pp.11~23.
- Ranis, Peter. 2010. “Argentine worker cooperatives in civil society: A challenge to capital-labor relations.” *WorkingUSA: The Journal of Labor and Society*, 13(1), pp.77~105.
- Ruccio, David. 2011. “Cooperative, Surplus, and the Social.” *Rethinking Marxism*, 23(3), pp.334~340.
- Russo, Vincent, Amy Starecheski. 2008. “Review: Horizontalism: Voices of Popular Power in Argentina, and: Sin Patrón: Stories from Argentina’s Worker-Run Factories.” *Oral History Review*, 35(2), pp.233~235.
- Schoijet, Mauricio. 2005. “Theses on the December 2001 Rebell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Argentina.” *Rethinking Marxism*, 17(2), pp.319~330.
- Smith, Neil.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Bird, John, Barry Curtis, Tim Putnam, Lisa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 Spieczny, Molly. 2004. “When Workers Take Over: Reclaimed Factories in Argentina.” *Master of Arts Thesis*. Princeton University.
- Tattersall, Amanda. 2008. “Coalitions and community unionism: Using the term community to explore effective union-community collabor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21(4), pp.415~432.
- The Lavaca Collective. 2007. *Sin Patrón: Stories from Argentina’s Worker-Run Factories*. Chicago: Haymarket Books.
- The Take. 2005. Directed by A. Lewis, written by N. Klein. Klein Lewis Productions.
- Trigona, Marie. 2009. “FASINPAT(Factory without a boss): an Argentine Experience in Self-Management.” ZNET.
- Tufts, Steven. 1998. “Community Unionism in Canada and Labor’s (Re)Organization of Space.” *Antipode*, 30(3), pp.227~250.
- Vega, Verónica. 2011. “Worker-run Factories in Argentina: The Power of Labour in Redirecting Contemporary Globalization Processes.” <http://islac.usf.edu> 검색일 2011.3.8.

- Walker, Richard. 1985. "Class, Division of Labour and Employment in Space." Gregory, Derek and Urry, Joh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St. Martin's Press.
- Walsh, Jess. 2000. "Organizing the scale of labour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service sector activism in the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2(9), pp.1593~1610.
- Wills, Jane. 1998. "Taking on the CosmoCorps? Experiments in Transnational Labor Organization." *Economic Geography*, 74(2), pp.111~130.